



선거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천일영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증권·금융

■ 4대 지방선거와 선거 비용

재정경제원은 3월 27일 「선거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4대 지방선거 비용으로 최소한 4,122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1> 법정 선거 비용 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지방의회의원	
	기초	광역
선거 비용	2,000	665
구분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
선거 비용	661	796
합계	4,122	

민자 454억 원, 민주 358억 원 등 정당에 제공되는 국고 보조금의 규모도 약 1,000억 원에 이르며,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 개인이 지출하는 자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2조 원 이상의

선거 자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선거는 통상 현금 통화를 늘려 선거 전부터 물가를 끌어올리고 산업 생산과 고용 사정도 크게 위축시켰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선출 인원과 후보자 수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해 파급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거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총 통화, 민간 소비, 수입은 예상과는 달리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 생산 및 수출은 생산 인력의 선거 운동원으로서의 유출, 선거일 휴무로 감소되었으며, 물가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행정 지도력 이완 등으로 선거 전에 상승하였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생산 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조업 증대를 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 생산 및 수출은 증대되었고, 물가는 정부의 통화 환수 정책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경향

을 보였다.

선거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과거 6대 선거를 전후한 분석 결과 주가의 경우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선거 실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주가가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92년 대선은 예외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회사채 수익률의 경우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상승세를 보였고, 경기 수축 국면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

이번 선거의 경우 주가는 선거 前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다가, 선거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회사채 수익률은 풍부한 시중 자금의 영향으로 선거 前에는 하락하다 선거 이후 정부의 강력한 통화 환수 정책 등으로 다

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경기가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데다 실시 시기도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6월이어서 과거 어느 선거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주식 시장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금화된 대기성 선거 자금의 일시적인 유출로 인해 선거 이전에는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지속적인 주식 공급 과잉과 하반기 경기 정점 도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물가 안정책에 따른 통화 긴축 정책의 영향으로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선거전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회사채 수익률은 하락세를 유지하겠으나, 선거 이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통화 환수 정책으로 다시 상승할 전망이다.♣

<표 2> 선거와 주식 시장

구분	경기순환국면	주가(월평균)			회사채 수익률		
		1개월전	선거당월	2개월후	1개월전	선거당월	2개월후
'81.3 총선	회복기	104.4	105.0	121.8	28.1	24.9	33.8
'85.2 총선	불황기	140.0	135.7	136.1	14.8	14.9	23.8
'87.12 대선	호황기	477.5	488.7	644.4	12.9	12.7	14.6
'88.4 총선	호황기	624.9	643.5	711.0	13.2	14.6	21.2
'92.3 총선	후퇴기	651.3	615.8	589.3	19.4	17.8	16.0
'92.12 대선	불황기	645.1	650.3	668.7	16.0	13.8	12.4
'95.6월 전망	호황기	(+)	(+)	(-)	(-)	(-)	(+)

주: (+) 상승, (-) 하락.